

스름스름 아침살롱

2016.9.16 오전11시

스름스름아침살롱

일회용컵 없이 테이크아웃 카페
가 가능할까?

- 1) 일회용품 없는 카페 보틀카페
- 2) 일회용컵 사용실태
- 3) 문제에 대한 대안 탐색



Bottle Cafe



1. 일회용품 없는 카페, 보틀카페

- 보틀카페 경험 공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테이크아웃 카페가 가능한가’에 대한 시도



1) 보틀카페의 테이크아웃 정책

: 일회용컵 대신 유리병에 담아 보증금과 함께 판매한 후 병 반납 시 보증금 환불

2) 준비과정에 대한 공유

: 유리병 선택, 유리병에 맞는 슬리브에 대한 고민, 캠페인슬로건 선정

1. 일회용품 없는 카페, 보틀카페

3) '보틀카페' 운영하면서의 경험 공유

- 보증금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했던 만큼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음.
- 불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특별한 반응이 없거나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
- 현재까지 병 회수율은 25% 정도로, 어떻게 회수율을 높일 것인지 방법 모색중 -> 음료 구입시가 아닌 병 반납 시 쿠폰 스탬프 발행 등

4) 앞으로의 계획

'테이크아웃 프로젝트' 지역카페로 확산

- 유리병을 사용하는 테이크아웃프로젝트를 지역 카페와 연계하여 참여 카페에 병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 -> 사용자 편의성 높임

2. 일회용컵 사용실태 - 현황

http://newspeppermint.com/2015/10/21/oceansplastic/?utm_source=related_news&utm_medium=inner&utm_campaign=yarpp

1) 무분별한 일회용컵 사용실태

- 한 해동안 우리나라 사람 한명이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컵의 개수가 평균 400개
- 쓰레기통 마다 쌓여있는 버려진 일회용컵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회적 비용 증가시킴

2) 해양오염의 주범

-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12만 톤, 약 230억(2015년 기준) 개로 이들 쓰레기는 우리나라 해양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음
- 페트병, 비닐, 산업폐기물 등 다양한 해양 쓰레기 중에서도 테이크아웃컵이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3)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

-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해양생물들로 해양쓰레기가 침적되어 있는 어망과 로프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한 쓰레기에 의한 소화장애 사망이 대표적임

2. 일회용컵 사용실태 - 히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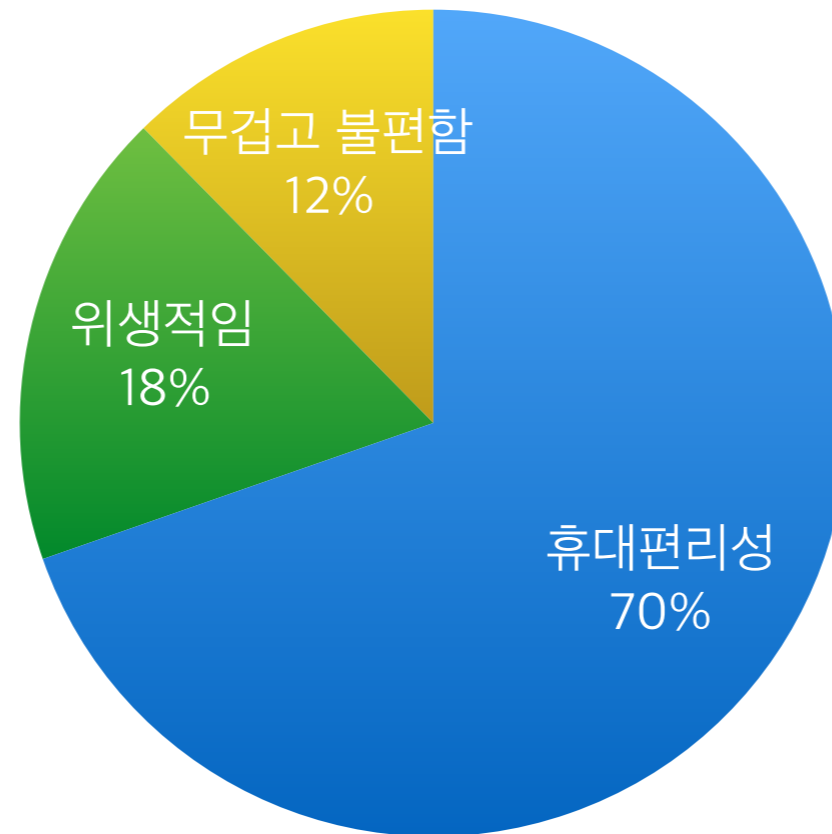
<http://m.asiae.co.kr/view.htm?no=2013022709223312683#hi>

환경부와 시민단체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이들 프로젝트 어떤 것도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확산되지 못한채 잊혀지고 말았음

- 일회용품 사용억제 정책 : 일회용 컵과 나무젓가락, 점포의 비닐 봉투 무상 제공을 금지
- 일회용품 보증금제 : 사용된 컵의 회수,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 환경부와 업계간 협약을 통해 컵을 돌려줄경우 10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1회용품 없는 매장 : 환경부가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과 함께 추진한 정책으로 매장 밖으로 음료를 갖고 나갈 때만 1회용컵을 이용하고 매장에서 마시는 음료는 머그나 유리컵에 서빙

2. 일회용컵 사용실태 - 설문조사

<http://m.asiae.co.kr/view.htm?no=2013022709223312683#hi>



-> 사람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대편의성**, 위생, 사용감이 주요 원인임.

(59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리이동시의 휴대 편리성(62%)'이 있으며 '머그보다 위생적일 것 같아서'(16%), '머그가 무겁고 불편해서'(11%)순으로 나타남,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3. 일회용컵 문제의 대안 토론 _ 텀블러 사용의 어려움

http://newspeppermint.com/2015/10/21/oceansplastic/?utm_source=related_news&utm_medium=inner&utm_campaign=yarpp

텀블러는 아마도 일회용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일텐데 왜 사람들은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 다른 사람들과 함께있을때 혼자만 텀블러를 사용하는 경우 괜히 유난떠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있을 때만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음
- 텀블러의 세척 문제도 텀블러를 사용하는 큰 어려움 중 한가지로 특수한 솔이 없으면 안쪽까지 세척이 불가하며 특히 라떼와 같은 우유음료의 경우는 바로 세척하지 않으면 냄새가 텀블러에 배어서 사용하기 싫어짐
- 오히려 여기저기서 나누어주는 판촉물 텀블러들 때문에 집에는 텀블러가 많지만 도리어 어느 한가지에도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게됨 (텀블러 자체가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음)

3. 일회용컵 문제의 대안 토론 _ 텀블러 사용지원

http://newspeppermint.com/2015/10/21/oceansplastic/?utm_source=related_news&utm_medium=inner&utm_campaign=yarpp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텀블러를 자주 사용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 금전적인 할인이 주요할 것 같은데 오백원 이하는 큰 동기부여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1000원 이상의 의미있는 할인이 있다면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카페에서는 의무적으로 화장실내에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는 곳을 두어야 하도록 규정화 하고 관공서에서도 중간중간에 텀블러 세척 스팟을 배치해야 함
- 개인적으로 대안학교를 다닐때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는데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을 일방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생활속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방식의 학습이 필요함
- 제발 저가의 중국산 텀블러를 행사에서 무료로 나누어주지 말았으면 좋겠음
- 자주가는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자신의 머그잔 or 텀블러를 카페에 키핑 해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재미도 있고 보기도 좋았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듯함

3. 일회용컵 문제의 대안 토론 _ 일회용품 금지 법안 사례

참고아티클 : 佛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 전면 금지

- 1) 프랑스정부는 2020년 부터 일회용 접시와 컵 등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
 - 최근 몇몇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하긴 했어도 플라스틱 접시와 컵 등의 사용까지 전면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
- 2) 법안에 대한 단체와 시민들의 반응
 -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 및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시민들의 반응

"더 일찍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어요. 업체들에 휘둘리기보다 이런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늦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과 해양을 해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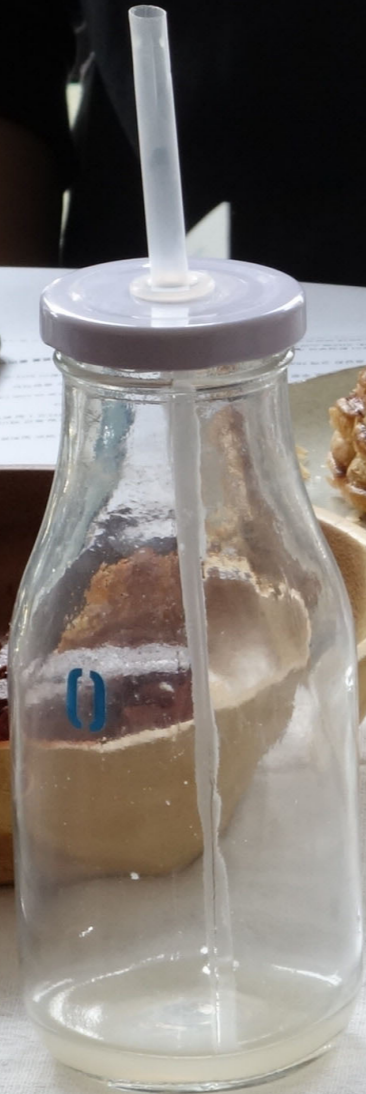
 - 일부 소비자와 업체들은 이번 규제가 '유럽연합 규정'에 위배된다며 항의

3. 일회용컵 문제의 대안 토론 _ 사회적차원

http://newspeppermint.com/2015/10/21/oceansplastic/?utm_source=related_news&utm_medium=inner&utm_campaign=yarpp

개인적인 실천이 아니라 정부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 카페에서 무분별하고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쓰레기 처리의 사회적 비용을 우리 공동의 세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게 억울함. 일회용품 쓰레기 분담금을 업주들에게도 분담시켜서 카페 차원에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생각함
-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쓰레기의 사용실태와 그 폐해를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프랑스의 경우는 2020년까지 모든 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업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고 함. 이처럼 반대를 부릅쓰고서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일회용품 쓰레기 절감 정책에 있어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스들스들 아

[일회용 사용물
테이크아웃 카페
일회용의 일회용
나는 한 달에 몇
그 많은 쓰레기는

[일회용 사용물
일회용을 없애는
우리는 무엇을 사

**TAKEOUT
TAKE(-)UT**



PHOTOGRAPHY: 김민준

